

목적원인론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들¹⁾

Teleological Creation Evidences

심영기

I. 머릿말

II. 본론

1. 진화론에 대한 오해

2. 생물학

1)서론

2)자연의 놀라운 설계

3)아름다움

4)의태

5)상사기관

III. 결론

Abstract

Evolutionary theory might be responsible for the modern morality which makes the present human society corruptive and destructive. Scientifically speaking, most of the so-called evolutionary mechanisms are not supported widely by experimental evidences and physical laws. The nature should be understood not only by the component itself but by a whole system.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sms represents that the whole nature was equilibrated perfectly within living things as well as non-living things from the very beginning. The teleological examples as the evidences of the perfect creation in the biological world will be presented.

I. 머리말

진화론은 지난 1세기 동안 우리 사회, 특히 교육계를 지배해 왔다. 언론 매체가 이 진화론을 고무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잡지들도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물진화가 ‘사실’이라는 점을 충성스럽게 주지시켜 왔다. 그 결과 매우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진화론은 확실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우리의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은 상당 부분 진화론적 사고에 몰든 인본주의적 철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소위 ‘새로운 도덕성’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무도덕성’(無道德性)으로써 무신론적 진화사상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같이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상에 몰들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우리의 사고나 생활 영역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콧스 재판(Scopes trial) 이후 진화론은 어디에서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 성경적 창조론은 일반적으로 폐기되거나 아니면 구시대의 케케묵은

신조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조직화된 기독교는 진화론의 맹공에 후퇴를 하느냐 아니면 타협을 하느냐 하는 문제로 지난 한 세기를 허비해 왔다. 그 결과 성경을 믿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기만당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명의 자연발생설(생물이 무생물에서 발생한다는 학설)이 틀렸다는 위대한 역사적, 과학적 사실을 배워 왔다. 레디(Redi), 파스퇴르(Pasteur) 그리고 스팔란짜니(Spallanzani)같은 학자들은 생명체는 오직 그 이전에 존재한 생명체에서만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더러운 냄마웃에서 쥐가 생겨난다는 생각은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교육자들이 태도를 바꾸어 생명의 자연발생설이 생명체 생성의 진정한 메카니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인가! 그러므로 최근의 생물 진화라는 것은 16세기 때의 과학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생명의 자연발생설을 교묘하게 재현하고 있는 것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생물 진화라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만다. 정당한 과학적 증거도 없는 한 아이디어가 과학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고귀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반해 최근 성경적 창조론이 다시 부흥되고 있으며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수천 명의 훌륭한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거부하고 창조론을 옹호하고 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미국의 각 주에서 창조론을 과학 과목에 넣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수많은 강의와 토론 대회가 수많은 대학 캠퍼스에서 열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목적은 생물학에 나타난 신비한 관계들을 보여 줌으로써 다양한 생물체들이 최초부터 완벽하게 동시에 존재해왔음을 알게 하여, 하나님에 의한 자연의 창조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는 데 있다.

II. 본론

1. 진화론에 대한 오해

성경의 정확성을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가장 널리, 또 많은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소개되어져 온 것은, 바로 현대 과학이 진화를 증명해 내었기 때문에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의 치명적인 잘못은 기원에 대해 과학적으로 어떤 이론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과학적 방법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관찰과 실험인데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어떤 관측이나 실험도 행할 수가 없다. 영국의 생물학자인 매튜(L. H. Matthews) 박사는 다윈의 「종의 기원」(1971)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진화가 사실이라는 것이 생물학의 뿌리인데 생물학은 증명되지 않은 이론에 바탕을 둬으로써 과학으로서의 모호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진화는 과학인가 아니면 신앙인가? 진화론을 믿는 것은 특수 창조를 믿는 것과 정확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두 이론에 대해 신자들은 각각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증명될 수 없었던 것이다.²⁾

과학자들이 과거나 현재에 대해 궁금해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관찰하는 것은 현재뿐이다. 그러므로 널리 퍼진 가설이기는 하지만, 진화론이 확립된 과학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많은 과학자들이 기원에 관해 가지고 있는 여러 믿음 중의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교사들은 아직도 진화론을 확립된 과학적 사실로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헉슬리(J. Huxley; 다윈 이론을 강력히 옹호했던 Thomas Henry Huxley의 손자) 경은 1959년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우선 말해야 할 것은 진화론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이다. 사려 깊은 과학자 중에서 진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과학자는 없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

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³⁾

케니(M. J. Kenny) 박사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물진화가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할 만한 것이 현재는 없다. 그 증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무식한 편견에 빠지는 희생자가 될 뿐이다.⁴⁾

심슨(G. G. Simpson) 교수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다윈은 ... 드디어 확실하게 진화가 사실임을 확립시켰다.⁴⁾

표준 지질학 교과서인 「지사학의 본질」(*Essentials of Earth History*)에 있는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화석 기록은 지구상의 생명체가 긴 세대를 통해 변해왔음을 보여 주는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 화석 유물들을 조직적으로 연구해 보면 지구 역사에 찬란한 새 빛을 보여 주어 수천 년 간 횡행하던 구시대의 미신적 태도를 불식시켜 주고 ... 화석은 생명체가 변화해 왔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전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편견 없이 이 문제를 접하는 사람은 단 하나의 결론 - 과거와 현재의 모든 생물들은 단순한 조상으로부터 유래되어 왔다는 결론 - 에 이르게 된다.⁵⁾

더우기 교황이 소유하고 있는 「주교 과학원」(*Portifical Academy of Science*)에서도 최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사람과 영장류들에게도 진화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엄청난 나게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확신한다.

어떻게 진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데는 진화론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진화가 일어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과학자들 역시 인간이라는 것이다. 인간을 완전히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마치 차가운 기계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편

견과 선입견을 가진 결과로 강한 개인적 확신을 갖게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들도 소위 ‘전문가’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교사들은 성경적 기독교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우주의 기원과 운명에 대해 자연주의적 설명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이런 모든 요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진화론을 널리 받아들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1967년 과학자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왈드(G. Wald) 박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이 지구상에서 생명의 기원에 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단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는 없다. 즉 창조나, 아니면 자연발생(진화)이나 하는 것이다. 제3의 방법은 없다. 생명의 자연발생설이 틀렸음이 100여 년 전에 증명이 되었으므로 이제 단 하나의 결론, 즉 초자연적 창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철학적인 배경 - 개인적인 이유 - 때문에 초자연적인 창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생명체가 우연히 저절로 발생했다는 것이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여 믿을 수밖에 없다.⁹⁾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화가 과학적 증거로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또 다른 대안(代案)인 초자연적 창조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물론 모든 과학자들이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아니다. 사실 과학사의 위대한 개척자들 중에는 헌신적인 기독교인들이 많다. 그 일부만 열거한다고 해도 뉴턴(I. Newton), 파스퇴르(L. Pasteur), 케플러(J. Kepler), 보일(R. Boyle), 패러데이(M. Faraday), 모르스(S. Morse), 켈빈(L. Kelvin), 그리고 맥스웰(J. Maxwell) 등 위대한 과학자들이 창조론자에 속한다.

아직도 다른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유리한 타협적 견해를 취하고 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없는 화학물질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는다. 이런 묘한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수많은 논쟁을 피해 타협점을 찾아 성경적 진수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이와같이 성경적 참 뜻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상의 한 예가 유명한 예수회 신부 뫼에르 델라르 드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의 사상이다. 그러나 성

경이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즉시 떨쳐 버리고 거부해 버리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진화를 쉽게 정의하면 창조주 없이 스스로 생겨난 생명체가 가상적인 어떤 경로를 통해 스스로 보다 발전된 형태로 변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조에 따르면 박테리아,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 등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간단한 옛 조상으로부터 순전히 우연에 의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지적 개입이나 계획도 없이 우연히 생겼다고 가정한다. “분자에서 인간으로”라는 이 이론의 전제는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수소 가스가 결국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 견해와는 정반대로 성경적 창조론은 하나님에 의한 특수 창조가 최초로 일어나고 그에 따라 자연의 모든 법칙, 과정 및 삼라만상이 창세기에 기록된대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모든 세대가 잘못된 아이디어로 세뇌되어져 왔음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15세기 동안 태양과 그 외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었다. 지금은 천동설로 알려진 이 가설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이론 중 하나는 오늘날 진화론과 똑같이 17, 18세기를 통해 확립된 과학적 사실로써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가르쳐졌던 ‘플로지스톤 이론’(Phlogiston theory)이다. 이 이론은 모든 타는 물질은 그 속에 플로지스톤이라는 마술적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성분이 물질을 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잘못된 생각은 후에 프랑스의 화학자 라보아제(Lavoisier)에 의해 부정되었는데 그는 산소라는 원소가 연소에 중요 원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던 것이다. 과학에 있어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역사적 큰 실수를 인용할 수도 있겠지만 각 세대마다 잘못된 이론으로 순진한 인류가 열병을 앓아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는 이 정도의 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같이 어리석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어떤 것을 찾거나, 그로부터 벗어날 방도는 없을까?

골치 아프게 기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 기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과연 시간과 정력을 바칠만큼 가치있는 일일까? 물론이다. 기원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도 충분히 있고 추구해 볼만한 가치도 충분히 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개성과 목적과 개인적 목표에 대한 의식을 필요로 한다. 기원에 대한 올바른 인식없이 그런 것들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원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활태도가 결정되고 그의

최후의 운명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기원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는 여부에 따라 다르다. 만일 진화론이 옳다고 한다면 인생은 도덕적 방향성이나 목적같은 것이 없어질 것이다.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면 우리 인생은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기원에 대한 견해는 분명히 그 외의 다른 확신과 행동과 신념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기원에 대한 의문을 푸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써 이것을 무시하게 된다면 인생에서 큰 곤란을 맞게 될 것이다.

비록 진화론과 성경적 창조론이 둘다 과학적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믿음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미 알려진 과학적 사실이나 관찰이 다 무용지물이 되거나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런 과학적 사실들이 어떤 모델이 기원에 대해 더 타당한 모델인지를 알아내는 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기존의 믿음에 지식을 더해 맹목적인 미신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음의 시와 그림은 진화론자들이 믿고 있는 일반 진화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나는 한 의자에 앉았다.
거기엔 앉을 받침도 없었고
받쳐 줄 다리도 없었고 등받이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난 그냥 앉았다.
그런 사소한 일들은 다 무시하고

2 생물학

1)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실로 놀랍고도 매혹적인 곳이다. 이 세상에는 시속 110km로 달리는 치타, 17년 간이나 잠을 자는 곤충들, 물속 450m를 헤엄치며 45분 동안이나 물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웨델(Weddell) 물개, 자기 팔을 잘라 먹어 새 팔이 자라게 하면서 먹물을 쏘아대는 여덟개의 팔을 갖고 있는 문어, 물 밖으로 4.5m나 물을 쏘아 벌레를 잡는 사수어(archerfish), 시속 240km



<그림 1>

로 먹이를 향해 쏜살 같이 날아 내리는 송골매 등, 아주 많은 신기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사실 그들의 기묘한 기관들과 놀라운 능력을 모두 적는 것은 끝이 없다. 지구는 실로 고도의 복잡성과 정교한 적응력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진화론자들이 무슨 설명을 한다고 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서로 다른 여러 집단의 생물체들과 그들이 속한 환경 그리고 또 그들과 다른 생명체들 사이의 놀라운 생태학적 관계는 오직 지혜자의 선견지명과 계획으로밖에 설명될 수가 없다. 생물 세계에 있는 목적과 설계와의 상호관계를 목적원인론(teleology)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에 놀라운 설계와 목적이 있음을 보여 주는 예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 있다.

생명체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생명체 사이의 놀라운 상호관계를 볼 때 창조론자들은 이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 창조론자들은 이와같이 복잡하면서도 정밀한 '적응'은 자연주의적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단계별 진행과정을 통해서서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지구 전체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는 아름다움들, 복잡하면서도 완벽한 생명체의 모습들은 초능력적 설계가이신 창조주가 실제로 존재하고 계심을 웅변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2) 자연의 놀라운 설계

여론 조사의 창시자로 잘 알려진 조지 갤럽(George Gallup)은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통계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사람의 신체를 생각할 때, 신체 각 부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우연에 의해 생겨난다면 통계적으로 보아 기괴한 괴물이 되고 말 것이다.⁷⁾

비록 인체의 모든 신비를 다 밝혀 낼만한 시간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갖고 있는 복잡성을 들추어 보면서 놀라운 자연의 설계를 알아 보도록 하자.

① 눈

진화론자들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눈이 우연한 단계별 진화의 결과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자동방향설정, 자동초점, 자동조리개 조정 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눈은 칠혹같이 어두운 곳에서나 밝은 태양빛 아래서나 머리카락같이 작은 굵기의 물체도 볼 수 있고, 매일 100,000개의 별도의 동작을 취하면서 총천연색 입체 사진을 착실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평상시 한마디 불평도 없이 이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자체 정비작업을 수행한다.⁸⁾ 인간의 눈은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과학자들은 아직도 눈이 어떻게 그러한 기능들을 다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놀랄 정도로 복잡한 여러 조직들이 신비롭게도 동시에 작용하여 시각을 만들어 내고 있는 눈의 메카니즘을 생각할 때,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눈이 단계별 진화의 시행착오를 거쳐 생겨났다고 믿을 수가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히 눈은 완전히 성숙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처음부터 정밀하게 모두 갖추어져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이 일부분씩 점차 진화해 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다윈은 눈과 같은 구조에 진화론을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 다른 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 다른 양의 빛을 받아들이며 ‘구면수차와 색수차’(spherical and chromatic aberration)를 수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눈의

특이한 장치를 생각할 때 자연도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솔직히 고백하건대 매우 불합리한 것 같다. ... 눈과 같이 완벽한 기관이 자연도태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믿는 것은 우리를 충분히 놀라게 하고도 남는다.⁹⁾

정밀하면서도 유리한 돌연변이가 동시에 셀 수 없이 무수하게 일어난다면 눈과 같은 기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와이송(R. L. Wyson)에 의하면 진화론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계산을 해 주어도 눈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10,266분의 1이라고 한다.¹⁰⁾ 이러한 과학적 사실로 볼 때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은 그들의 독단적인 태도를 버리고 솔직하게 심각한 진화론의 오류를 인정했던 정직한 다윈의 말을 따라야만 할 것이다.

진화론자들은 눈이 단번에 발전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발달되어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더욱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고 있다. 프랭크 샐리즈베리(Frank Salisbury)는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소위 평행진화라 불리우는 것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깊은 의문점은 ... 눈과 같이 복잡한 것이 예를 들어 오징어, 척추동물 그리고 절족동물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났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복잡한 눈이 예전에 이미 한번 존재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며 더우기 그 눈이 여러 차례나 만들어졌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¹¹⁾

우리가 최후로 얻게 된 결론은 이제 자명해졌다. 눈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 완벽한 형태로 놀랍게 창조된 것이다. 스테미우스(Sturmius)가 지혜롭게 말한 것처럼 “눈을 조사하는 일이 곧 무신론자를 치유하는 것이다”¹²⁾

② 해삼

우리는 해양 생물 중 가장 신비한 모습을 바로 기묘한 해삼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다. 해삼은 조수가 밀려드는 해안가에 살면서 주로 말미잘을 먹고 산다. 말미잘은 촉수에 수천 개의 남을 찌르는 세포를 갖고 있는데 아주 미세한 접촉에도 반응을 해 침입자에게 독침을 쏘아대므로 해삼이라도 이 말미잘을 항상 저녁 거리로 삼지는 못한다. 일단 침에 맞은 침입자는 전신 마비를 일으키게

되며 말미잘은 이를 삼켜 소화시키고 만다.

그러나 말미잘의 이 방어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해삼은 놀랍게도 말미잘에게 찢리지도 않고, 독침을 나오게 하지도 않고, 말미잘의 먹이가 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말미잘을 잡아 먹는다. 이 놀라운 자연의 신비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해삼이 말미잘의 쏘는 세포를 무력화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해삼이 이 말미잘을 잡아 먹게 되면 소화가 안된 독침 세포는 위에 연결된 섬모관을 통해 밑으로 밀려나 맨 끝 주머니에 도착하게 된다. 이 독침 세포는 그 주머니 속에 가질런히 정리되어져 있다가 오히려 해삼의 방어용으로 쓰인다. 만약 해삼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불행하게도 먹이가 되어버린 말미잘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독침세포들을 이용해 해삼은 언제든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가사이한 관계를 만들어 내기까지의 복잡한 일련의 변화들을 진화론적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우선 독침세포가 튀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해삼은 그것을 일시적으로 중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화학무기로 진화해야만 할 것이다. 해삼은 또한 말미잘의 나머지 부분들은 다 소화시키면서도 독침세포들만은 소화시키지 않는 새로운 소화기관으로 진화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해삼은 매우 복잡한 섬모와 주머니로 진화해서 독침세포들을 가질런히 정리하여 저장하고 유지시켜 주는 복잡한 메카니즘을 갖는 모습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진화론의 기대와는 다르게 말미잘은 해삼의 이러한 공격 의도를 방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기를 스스로 멈추고 오히려 해삼의 계획에 말려 들어가 죽는 쪽으로 준비해 나가야만 한다.¹³⁾

이와같이 비정상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진화론적 설명으로도 만족할만하게 대답을 주지 못한다. 이 놀라운 상호관계에 대한 단 하나의 합리적인 해결은 창조론밖에 없다. 이들 기관들은 창조주에 의해 생태학적 상호관계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신비롭게 창조되고 설계된 것이다.

③ 정원 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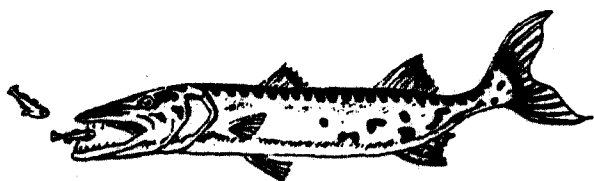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 신비한 상호관계는 중남미에 있는 황소뿔 아카시아 나무에서 볼 수 있다. 이 나무는 무서운 독개미가 사는 큰 구멍난 가시를 갖고 있다. 나무에 있는 작은 혹은 개미에게 음식까지 제공한다. 결국 개미는 그 나무로부터 음식도 얻고 또 보호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일종의 호의

를 베풀어 주는 댓가로 이 나무는 다른 모든 동물로부터의 침략과 다른 경쟁 식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는다. 이 개미들은 이 아카시아 나무에 어떤 침입자가 접근하면 사납게 대들어 퇴치한다. 이러한 공생관계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개미가 정원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집 나무 사방에 정기적인 공격을 감행해 그 나무 주위에 나는 식물의 싹은 모조리 잘라 버린다. 그 결과 이 특수한 나무는 경쟁자가 득실거리는 열대 정글에서 보기 드물게 항상 충분한 햇빛과 공간을 갖게 된다. 실험적으로 이 나무로부터 개미를 모두 제거해 보았더니 나무가 2~15개월만에 죽어 버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¹³⁾

진화론자들은 별 생각도 없이 이러한 형태의 공생관계를 상호적응의 한 예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한 복잡한 관계가 진화과정을 통해 발전되어 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관점은 신앙과 상상의 문제이지 과학의 문제가 아님을 계속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상호 관계는 바로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뚜렷한 목적을 갖고 고도의 지식을 이용하여 설계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믿는 창조론자들의 믿음이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④ 청소물고기의 공생

진화론적 사고를 비롯기나 하듯 자연에서 발견되는 신비한 상호 공생관계 중의 하나가 소위 물고기 사이에 있는 청소공생이라 불리우는 공생관계이다. 이 관계는 찌꺼기를 청소해 주는 댓가로 편안하게 먹이를 공급받는 상호 공생 관계이다. 먹이를 잔뜩 먹은 큰 물고기가 이리저리 배회하면서 자기 입에 낀 찌꺼기나 기생충을 먹어 치워 줄 보다 작은 물고기나 새우를 찾아 다니는 경우가 그 한 예다.



<그림 2>

몇 종류의 물고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청소지대를 방문하기도 한다. 청소 지대에 온 큰 물고기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 보인 채 입과 아가미를 벌리고 있으면 겁도 없이 작은 청소부 물고기와 새우가 그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 그 찌꺼기들을 말끔히 먹어치우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잡일이 끝나면 그 작은 청소부들은 상처하나 입지 않은 채 그 큰 물고기 입 밖으로 헤엄쳐 나오고, 또 그 큰 물고기도 유용하게 자기 할 일을 위해 다시 헤엄쳐 나간다.

이런 상호관계를 통해 양측은 모두 확실하게 이득을 본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이런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지 그 기원과 그 발전과정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런 상호관계가 미리 성립되어지지 않았다면 이들 각각의 물고기들이 생존할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떠 오를 수도 있다. 육식성 물고기, 청소담당 물고기 그리고 새우 등 서로 다른 물고기들이 이 일에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진화론자들에게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창조론자들은 이런 형태의 상호관계란 절대로 단순한 우연이나 시행착오적 진화과정에 의해 생겨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동물의 본능은 이와 같은 비자연적인 자살경향을 틀림없이 무시해 버릴 것이다. 또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먹이를 얻고자 하는 유혹과 살살 간질려 대는 청소부를 해치고 싶은 유혹은 그와 같은 상호관계로 발전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은 당연히 특수한 창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한다면 이러한 청소공생이 물고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집트 폐쇄는 기생충을 처리하기 위해 나일 악어의 입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다. 이 새 역시 절대로 상처를 입지 않는다.¹²⁾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솜씨인가!

⑤ 딱정벌레의 전쟁

작은 주머니 속이라 할지라도 종종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작은 폭격수 딱정벌레라고 불리는 곤충이다. 폭격수 딱정벌레는 놀라운 정도로 인상적인 방어 시스템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작은 곤충이다. 적의 공격 위협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이 원기왕성한 작은 딱정벌레는 그 온도가 100℃나 되는 자극적이면서도 지독한 개스를 두 꼬리관으로부터 공격자의 안면에 분사해 버린다.

독일의 화학자인 헤르만 쉴트크네히트(Hermann Schildknecht) 박사는 어떻게 이 딱정벌레가 놀라운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는 이 곤충이 두 종류의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 즉 하이드로 퀴논과 과산화수소를 함께 섞어 폭발시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두 화학 물질 이외에도 이 작은 현명한 딱정벌레는 저해제로 알려진 다른 형태의 화학물질을 더 지니고 있다. 이 저해제가 위의 두 화학물질이 터지는 것을 막아 주고 그 몸속에 이 화학물질을 무기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개구리 같은 것이 자기를 잡아 먹으려고 다가오면 언제든 이 딱정벌레는 저장해 놓았던 화학물질을 두 연소관으로 분사하고, 정확한 시간에 또 다른 화학물질인 저해중화제를 넣어 준다. 이 저해중화제는 폭발저해제를 무력화시켜 불쌍한 공격수의 얼굴 정면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놀랍고도 복잡한 메카니즘이 과연 수백만 년을 거쳐 하나씩 하나씩 진화해 온 결과일까? 진화론자들은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말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진화론적 ‘사고’를 따른다면 수천 세대 동안 이 딱정벌레는 죽음을 무릎 쓴 진화론적 실험으로 이 위험한 물질을 부정확하게 섞어 왔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산산조각나 버린 경험이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드디어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마술적인 처방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해도 저해제를 개발해야 하는 일은 어떻게 했겠는가? 저해하려는 두 화학 물질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미리 저해제를 갖도록 진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반면에 만일 저해제가 없이 두 화학물질만 갖고 있었다면 때는 늦어 자신은 이미 산산 조각나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분명히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 데에는 지적인 예견과 계획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작은 딱정벌레가 동시에 두 화학물질과 매우 중요한 저해제를 개발해 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용액 그 자체로써는 딱정벌레에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 용액은 무해한 혼합물로서 딱정벌레 속에 그냥 들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딱정벌레에게 어떤 유익이라도 주게 하려면 저해중화제가 그 용액 속에 첨가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수천 세대 동안 이 불쌍한 딱정벌레는 별 이유없이, 또 별 유익도 없이 저해중화제가 완성될 때까지 이 화학물질을 혼합하고 저장하는 일을 해 왔다고 믿어 주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딱정벌레가

진짜 만날 일을 만나게 되었다! 개발한 저해중화제를 갖고 분사시켜 자신을 잡아 먹으려는 허기진 적을 어리둥절하게 하려고 한다. 아, 그런데 그는 아직도 두개의 연소관, 정확한 의사 전달, 정확한 방향과 폭발시간을 통제하고 조절할 시간 체제 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런 기관들을 갖추도록 또 진화되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다시 수천 세대 동안 걱정없는 이 작은 딱정벌레는 새로 발견한 위력을 몸에 익힐 때까지 마치 독립기념일 축제를 위해 폭죽을 터뜨릴 양으로 수천만 년을 배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슨 동기로 그러한 재난, 시행착오, 단계별 진화를 거쳐야만 하는가! 진화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분별력과 논리적 목적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어떤 분별력이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총체적 방어시스템이 단번에 진화된다는 것이 설혹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천문학적 수치로 불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자연계엔 이와 같은 완벽한 협력체계의 예가 실제로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작지만 이 놀라운 폭격수 딱정벌레는 특수 창조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 된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이로운 일에 대한 다른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¹⁴⁾

말선두리 딱정벌레도 비록 다른 형태이지만 인상적인 방어 메카니즘을 지니고 있다. 그는 세계 물질을 선(腺)에서 분비함으로써 적을 퇴치한다. 세체물질을 내뿜음으로써 두 가지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첫째, 딱정벌레를 앞으로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당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다. 둘째, 이 세계는 물의 표면장력을 떨어뜨려 쫓아 오던 벌레가 물에 빠지게한다.¹⁰⁾

시편기자의 고백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 준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회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다(시 104:24).

⑥ 귀소본능

철새는 실로 놀랄만한 항해 재주를 부리는데, 작은 흰목 노래새가 그 중 하나다. 이 새는 여름은 독일에서 지내고 겨울은 아프리카에서 지낸다. 여름이 가워질 때 쫓 어린 새는 독립하게 되는데 부모 새는 어린 자녀를 뒤에 남겨 놓

은 채 아프리카로 떠나 버린다. 이 어린 자녀는 몇 주 후 그 자리를 떠나 본능적으로 수천 마일의 낯선 땅과 바다를 가로질러 먼저 떠난 부모를 찾아 만나게 된다. 어떻게 이들이 한번도 가 본 적이 없는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항해해 가는가? 실험에 의하면 이 새의 뇌 속에는 별에 의해 고도, 경도 및 방향을 말해 주는 지식은 물론 달력, 시계 및 필요한 항해 데이터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유전되어 있다고 한다. 고도로 복잡한 이 모든 장치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안내도 없이 그들의 부모가 있는 장소로 날아가게 해 주는 것이다.¹³⁾ 이외에도 다른 많은 새와 동물들이 비슷한 귀소 기술을 갖고 있다.

황금메세는 허드슨 만 지역에서 남쪽으로 12,800km를 날아 노바스코티아에서 3,200km 떨어진 바다를 건너 카리브 제국으로 날아갔다가 겨울을 아르헨티나에서 보낸다. 이들은 중앙 아메리카와 미시시피 계곡을 지나 되돌아 온다. 제비는 북 캐나다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이주한다. 북극 제비갈매기는 매년 극에서 극으로 약 22,400km를 이주한다. 고래, 털물개, 박쥐, 연어, 거북이, 뱀장어, 나그네쥐와 그 외 여러 동물들도 또한 이주를 하고 있다.¹⁵⁾

이들 동물들에 의해 나타나는 이주의 원인과 놀라운 방향 감각은 진화론자들에게 과학의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를 제기하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씩 하나씩 단순한 우연에 의해, 어떤 지적 지시도 없이 진화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보라는 곤혹스런 질문을 받고 있다. 이런 본능이 한 단계씩 발전해 왔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귀소본능이란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바다를 완벽하게 반쯤만 항해해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무 도움도 안되는 것이다.

귀소본능의 완전성, 그 정확성과 수천 종류 동물에게 널리 보존되어 있는 지극히 중요한 역할은 단순한 점차적인 진화로써는 설명될 수가 없다. 이런 놀라운 현상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 결론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도록 이 동물들이 정교하게 창조되고 설계되어 즐겁게 대를 이어가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⑦ 곤충의 비행 능력

곤충은 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무척추 생물로서 갖가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다른 어떤 무척추 생물보다 다양해서 이 지구상에 약 1백만 종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곤충의 날개는 화려하게 설계된 비행기구로서, 날개짓을 매우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곤충의 날개 동작은 매우 복잡하여 상승과 하강, 전후방 동작, 내전과 외전 및 수없이 다양한 접어 넣는 형태의 변화 등 그 동작이 매우 다양하다. 많은 곤충들이 위로 날아올라갈 수도 있고 또한 뒤로 날 수도 있다. 어떤 것들은 옆으로도 날고 또 서로 다른 날개 동작을 이용해 머리 주위나 꼬리 주위로 회전할 수도 있다.

벌, 나비, 그리고 파리같은 곤충은 작은 날개로 여러 놀라운 비행 기술을 조합해 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꿀벌은 큰 날개로는 꿀을 모으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작은 날개가 매우 빠른 날개짓으로 그 역할을 보충해 준다. 날개짓의 범위는 매우 다양해 어떤 딱정벌레는 매초 55회 정도로 날개를 치지만 꿀벌은 초당 200회 이상이 된다. 미지(midge)라는 작은 모기는 초당 1,046회나 되는 민을 수 없을 만큼 빠른 날개짓을 한다.¹⁶⁾

곤충의 비행 능력은 실로 공학적 기적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이 증거하듯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창조하신 만물에 의해 나타나므로 사람들은 진리를 거절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롬 1:20).

3)아름다움(美)

자연의 모든 것이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차 있다. 많은 생물들이 아름다운 색깔과 절묘한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으며 왜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을까? 진화론자의 도표를 따른다면 최초의 생명체에는 확실히 그런 아름다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창조론자들은 생물계에 나타나는 이 아름다움의 기원과 발전, 그 완벽함 및 광범위한 분포는 진화론적 설명이 틀렸음을 확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화론자들은 아름답지만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 또 불필요한 미(美)의 경우들도 많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무척 곤란을 느끼고 있다. 진화론자들을 훨씬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시각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종종 사람과 하나님에게만 시적 회열을 줄 뿐 거의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거의 또는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는 구조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심해 물고기인 로딕티스(Rhodichthys)라는 물고기는 매우 강한 붉은 색을 띠고 있는데 이 물고기는 수면에서 2.4km나 되는 완전히

깜깜한 깊은 곳에 살고 있다. 마찬가지로 심해 조개의 한 종류인 네오스코필러스 매크로레피도투스(*Neoscopelus macrolepidotus*)는 선명한 하늘색에 밝은 적색, 또 은색점에 검은색 원이 그려져 있다.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어떤 생물의 알은 매우 밝은 색으로 채색되어져 있기도 하다.⁹⁾

진화론자들이 쓸모 없다 생각하는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괴로움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진화하는 것은 무엇이든 실제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진화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진화란 왜 그렇게 변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책임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바닷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 어떤 조개 껍질 안 쪽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 갯 켤 새 새끼의 입 안쪽의 눈부신 색깔 등등은 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을까?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단지 색깔만을 고려하고 있지 자연에서 발견되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건축 디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시각적 아름다움이 진화과정의 자연적 산물이라면 왜 저급 생명체가 사람같은 고급 생명체보다 더 아름다울까?

진화론적 사고는 이러한 아름다움을 설명하려는 데서 완전히 실패하고 만다. 진화론자들은 심미적인 것 이외에는 어떤 실질적인 기능도 없는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 쌓여 어리둥절하고 있다. 우리가 관찰한 사실에 대해 논리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아름다움들이 삼라만상의 위대한 디자인이면서 동시에 심미가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시편기자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자연을 통해 볼 수가 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시 19:1).

4)의태

의태란 한 종류의 생명체가 다른 종류의 생명체를 흉내내는 신비한 자연 현상을 말한다. 몇몇 동물들과 어떤 식물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곤충에게서 남을 모방하는 현상이 주로 발견된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모방의 놀랄만한 완벽함, 다양성 및 그 기술을 보면 진화론적 생각은 정말로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곤충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방의 완벽함은 너무 놀라워서 진짜 곤충을 관찰하고 있는 노련한 곤충학자조차도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 실제로 너무나 완벽하게 흉내를 내기 때문에 상대방 곤충을 감쪽같이 속여 그 적에게 들리지 않고 유유히 살아가곤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거미는 개미로 변장을 한다.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매우 기발한 것이다. 거미는 여덟 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데 반해 개미는 단지 여섯 개의 다리와 두 개의 더듬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개미를 유인하기 위해 거미는 앞쪽의 두 다리를 머리 앞으로 내밀어 더듬이처럼 더듬더듬 움직인다. 이 변장을 더욱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거미는 또한 개미처럼 실룩실룩 걷는 모습에 음식 먹는 모습까지 흉내를 낸다. 어떤 거미는 그 자신을 변장하기 위해 몸에서 개미 껍질을 지고 다니는 것이 눈에 띄기도 한다.

영국의 바다가재 나방이의 애벌레는 하나의 절묘한 모방을 보여 준다. 이 애벌레는 다리로 너도밤나무 싹 주위에 나무 껍질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변장을 한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적당한 수, 길이, 색깔 및 모습이 진화론자들의 상상처럼 우연히 되어졌는가? 이 애벌레는 공격을 받게 되면 그의 검은 빛 상처가 보이도록 한쪽을 축 늘어뜨려 공격자로 하여금 이미 자신은 다른 벌레의 먹이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도록 속임수를 쓴다. 그러면 오던 적은 실망하고 떠나 버린다. 이와같이 정확하면서도 복잡하게, 또 주의깊게 만들어진 모방은 진화론자들로 하여금 생물체가 진화에 의해 생겨났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한다.⁹⁾

어떤 생물은 공격자들이 보통 좋아하지 않는 나쁜 냄새나 독침을 모방함으로써 적을 물리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 종류의 나비가 남이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나비나 나방을 본따기도 한다. 어떤 종류의 파리는 벌이나 말벌류를 흉내내기도 한다. 진화론자들을 더욱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생명체는, 한쪽 성(性)은 남을 모방하지만 다른 성(性)은 남을 모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종 공격당하는 쪽이 아니라 공격하는 자가 남을 흉내내는 경우도 있다. 사막 도마뱀 중 어떤 것은 한 쪽 입을 이용해 사막의 작은 꽃 모양을 만들어 곤충을 유인해 잡아 먹기도 한다. 낚시고기는 머리 앞에 벌레모양의 미끼를 흔들흔들하게 만들어 다른 물고기를 그 입으로 유인해서 잡아 먹는다. 어떤 불나방 암컷은 다른 종류의 암컷이 내는 불빛을 흉내내 수컷 나방이 구애하러 찾아 오

면 잡아 먹는다. 유럽의 비둘기와 미국의 찌르레기는 다른 새 등지에 알을 낳아 그 새끼를 다른 새가 잘 키우도록 한다. 어떤 경우엔 이 무정한 양 부모가 이 배 다른 가족들을 모두 등지에서 쫓아 내기도 한다.¹⁷⁾

천재적인 모방의 다른 예도 셀 수 없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진화론적 설명도 타당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자연에서 관찰되는 모방의 풍부함, 다양함, 완벽함, 또 충분한 모방 자원을 다 이해한다거나 기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화론적 사고는 이와 같은 모방의 기원, 발전 또는 그 완벽함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으며 특히 이 모방이 모양, 색깔, 습관 등과 혼합되어 있을 때에는 더욱 설명이 곤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모방은 진화를 부정하고 특수 창조를 설득력있게 뒷바침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5) 상사기관

비슷한 기관, 구조, 색깔, 습관 등이 서로 무관한 생명체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현상을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구조, 습관 등을 낳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런 현상을 상사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나 창조론자들은 매우 복잡한 구조나 기관이 진화에 의해 단 한번의 기회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 정밀한 구조가 독립적으로 전혀 다른 조상들로부터, 매번마다 완전히 구조적으로 서로 다른 시발점에서 유래해 나온다는 것은 순전히 상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사기관의 예는 자연에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박쥐와 돌고래에서 모두 발견되는 매우 복잡한 음파 시스템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윌리(Willey) 씨는 상사기관의 특이한 예를 관찰한 후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지금까지 두 생물 사이의 가장 놀라운 유사성은 캐피텔리데이(Capitellidae)와 척추동물에 있는 측면 감각기관에서 볼 수 있다 - 서로 다른 문(phyla)임. 두 경우 모두 작고 단단하며 둥근 피부에 싹 모양의 돌기가 나 있다. 그곳으로부터 미세하고 곧은 감각모발이 주위로 뻗쳐 나와 있는데 그 부분부분마다의 배열은 서로 매우 유사하다. 이보다 더 깊게 연관성을 갖는 것도, 이보다 더 가까운 유사성을 갖는 것도 없을 것이므로 도저히 더 이상 비슷한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¹⁸⁾

이와 같은 상사기관의 특이한 경우들을 보면 아무리 열렬한 진화론자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중(二重) 상사기관의 경우를 보면 더욱 완벽하게 그 믿음이 무너지고 만다. 이중 상사기관의 예는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꼬리와 제 각각 움직이는 눈을 갖고 있는 해마와 카멜레온에서 볼 수 있다!

아무리 복잡한 메카니즘이나 구조라고 해도 단 한번의 진화의 기회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거의 동일하게 복잡한 구조, 습관, 그리고 생리현상들을 갖고 있는 것도 수 없이 많이 있는데, 비록 그들의 해부학적 기원은 서로 매우 다르지만 이들이 진화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중 상사기관은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특징들을 많이 보여 주고 있다. 진화론적으로 상사기관을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될 수밖에 없다. 성경적 창조론만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창조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생명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매우 유사한 동일 구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상사기관이란 진화 모델이 잘못되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신비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렘 32:17).

III. 결론

기원 문제를 관찰하거나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진화론이나 성경적 창조론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임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둘다 모두 기원에 관한 종교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진화론의 경우엔 맹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와이송(R. L. Wysong) 박사의 말대로 진화론의 경우엔 특히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

진화론은 많은 믿음을 요구한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L형 단백질에 대

한 믿음, 저절로 만들어진다면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는 핵산 암호문 완성에 대한 믿음, 어떤 화학 반응으로도 생명을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는 초기 지구 환경이 실재했다는 믿음, 태초에 지적 개입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증명해 내지 못한 실험을 믿는 믿음, 바다가 최초엔 그렇게 끈적끈적 하지도 않았고 소망도 없는 아주 희석된 화학물질로 되어 있었음을 믿는 믿음, 생명체의 자연발생을 실제로 부정하는 열역학 법칙과 생물 속생설을 포함한 자연법칙을 믿는 믿음, 진화론자들에게는 더욱 난처한 문제만 제시하는 미래의 과학적 발견을 믿는 믿음, 진화론을 부정하는 한편 창조주를 인정하게 되는 확률을 믿는 믿음, 종(種)은 고정되어 있지만 변한다고 믿는 믿음, 진화론을 이중적으로 부정하는 돌연변이설과 자연도태를 믿는 믿음, 전 지구 역사를 통해 종이 고정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 주고 전세계적 대홍수를 확실히 증거해 주며 중간 화석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 주는 화석을 믿는 믿음, 단지 분해만 유발시키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시간을 믿는 믿음, 물질주의자들의 주장이 결국 무(無)로 돌아가 초자연적 창조주가 있어야만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환원주의를 믿는 믿음 등이다.¹⁰⁾

이것은 진화론이 실제로 비논리적이며 셀 수 없이 많은 과학적 오류로 가득한 근거 없는 가설임을 잘 보여 주는 반면, 성경적 창조론이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들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성경적 기독교를 믿는 것이 이성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확실하고도 신뢰할만한 과학적 증거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곳곳에 퍼져 있는 진화론은 현재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무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창조 사건을 거부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성경 자체의 메시지를 전적으로 부인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탄의 환상에 빠질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사람들을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론적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절망적인 미래만을 경험하게 될 뿐이다. 성경이 말하듯 말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 16:25).

참고문헌

1. Scott M. Huse, *The Collapse of Evolution*(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2. L. H. Matthews, *The Origin of Species*(Introduction) by Charles Darwin(London: J. M. Dent and Sons, Ltd., 1971), p. 10.
3. Sol, Tax, Ed., "Evolution After Darwin", *Issues in Evolution*, Vol. 3(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60), p. 41.
4. M. Bowden, and J. V. Collyer, "Quotable Quotes for Creationists", *Creation Science Movement*, Pamphlet No. 228(January 1982), p. 1.
5. William Strokes, and William Lee, *Essentials of Earth History*(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6), p. 468.
6. Dennis Lindsay, "The Dinosaur Dilemma", *Christ for the Nations*, Vol. 35, No. 8(November, 1982), pp. 4~5, 14.
7. Cora A. Reno, *Evolution on Trial*(Chicago, Illinois: Moody Press, 1970), p. 192.
8. Emmott L., William and George Mulfinger, Jr., *Physical Science for Christian Schools*(Greenville, South Carolina: Bob Jones University Press, 1974), p. 628.
9. E. Shute, *Laws in the Theory of Evolution*(Nutley, New Jersey : Craig Press, 1961), p. 468.
10. R. L. Wysong, *The Creation-Evolution Controversy*(Midland, Michigan: Inquiry Press, 1981), p. 455.
11. Frank B. Salisbury, *Doubts About the Modern Synthetic Theory of Evolution*(American Biology Teacher, September 1971), pp. 336~338.
12. Gary E. Parker, *Creation: The Facts of Life*(San Diego, California: Creation-Life Publishers, 1980), p. 163.
13. R. E. Kofahl, *Handy Dandy Evolution Refuter*(San Diego, California: Beta Books, 1977), p. 159.
14. Duane T. Gish, *Dinosaurs: Those Terrible Lizards*(San Diego, California: Creation-Life Publishers, Inc., 1976), p. 62.
15. William S. Redding, Ed., *The Lincoln Library*, Vol. 2(Columbus, Ohio: The

Frontier Press Company, 1970), p. 207.

16. Stephen M. Butt, "Insect Flight: Testimony to Creation", *Creation Science Movement*, Pamphlet No. 226(July 1981), p. 4.

17. Helena Curtis, *Biology*(New York, New York: Worth Publishers, Inc., 1969), p. 862.

18. J. Willey, *Convergence in Evolution*(London, England: John Marray, 1911).



■ 심영기 ■

1953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강원대 농화학과, 고려대 대학원에
서 화학과로 석사학위, 캘리포니아대학 화학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한남대, 고려대 강사 및 프린스턴대학에서 교환교수로 활동했으며,
현 한국화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실장으로 재직 중.